Hello, I am Sister M. Ellenita O'Connor. I was born the only child of Catherine and Thomas O'Connor. My mother was one of eight children so I had many cousins who treated me like their sister. I was born in Crafton in Pittsburgh and lived in Sheraden and on the South Side. I attended Holy Innocents in Sheraden and Holy Cross in South Side, both taught by our Sisters of Charity. I remember Sister Regina Clare coming to our eighth grade class to talk about the exciting new high school which would open in Brookline. I graduated from the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n the first graduating class.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the following September 8, 1945.

I received my Bachler Degree in Elementary Education at Seton Hill College. I taught first and second grades at several of our schools and then I moved on to teach Grades 5 – 8. Because I had studied business courses in high school, I taught business and some English classes at Salpointe High School in Tucson, Arizona. In 1967 I was appointed principal of my alma mater, Elizabeth Seton High School. During my time at Elizabeth Seton, I supervised the new classroom complex as it was being built.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architecture. When the building was finished the architecture firm told me if I ever wanted to work in that field, they would hire me.

In the 60's Notre Dame developed a course for religious to train them in Business. I received my Masters Degree in Business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in 1966 from Notre Dame. I was able to use this education when I was appointed Treasurer of the Congregation in 1979. I loved following the stock market except when it dropped.

In 1996 I began work on our present Caritas Christi. What an exciting project to take part in! We had a team of several sisters and lay people. I had worked on several community projects before this time but this was to be the biggest one for me. First, we had to find living facilities for over 70 sisters who were living in Assumption Hall because Assumption Hall had to be torn down.

How exciting to retire at Caritas Christi and see if we had done a good job or not. Caritas Christi supports my belief that "in religious life, we receive much more than we can possibly give."

안녕하세요! M. 엘레니타 오코너M. Ellenita O'Connor 수녀입니다. 저는 어머니Catherine과 아버지 토마스 오코너Thomas O'Connor 슬하에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형제가 8남매나 되어서 사촌들이 많았어요. 사촌들은 저를 친남매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피츠버그의 크래프톤Crafton에서 태어나 사우스사이드South Side의 셰라든Sheraden에서 살았습니다. 셰라든의 홀리 이노센츠Holy Innocents 학교와 사우스사이드의 홀리 크로스Holy Cross 학교에 다녔는데 두 학교 모두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이 가르치셨습니다. 8학년 때 어느 날 레지나 클레어Regina Clare 수녀님이 우리 반에 오셔서 브루클라인Brookline에 새 고등학교가 개교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학교인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의 첫 졸업반이 되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1945년 9월 8일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씨튼힐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여러 학교에서 1, 2학년을 가르친 후에 5학년에서 8학년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상업과목을 공부한 덕에 애리조나주 투산의 살포인트 고등학교Salpointe High School에서는 상업과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967년에는 제 모교인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의 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새 교실 건물동을 지으면서 건축을 감독했습니다. 그 전부터 저는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건축회사는 제가 건축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저를 고용하겠다고 했지요.

1960년대에 노틀담Notre Dame 대학교는 수도자들을 위한 경영학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966년에 노틀담 대학교에서 상업 교육 및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79년에 수도회 회계를 맡으면서 공부한 분야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를 제외하고요.

1996년에는 현재의 모원 까리타스 크리스티Caritas Christi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지요! 우리 수녀님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일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가지 수도회 프로젝트를 위해 일했지만, 까리타스 크리스티 건축은 제가 맡은 가장 큰 작업이었습니다. 승천홀Assumption Hall을 철거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승천홀에 살고 있는 70명이 넘는 수녀님들이 머물 공간을 먼저 찾아야만 했지요.

은퇴하고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살면서 건축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랍니다! 까리타스 크리스티는 "수도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는다"라는 저의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